



2025 출제 기조 전환 대비 **LIVE**

'지금 당장 네 실력을 확인해 보!'

인혁처 예시 문제 변형 모의고사



인사처 예시 문제 20문의 문항 배열 순서와 똑같이 배치한 모의고사

01 다음은 공문서의 일부이다. ㉠~㉤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전문가 초청 워크숍 참가 안내

- 우리 원은 문화 예술 관련 기관·단체 소속 실무자와 예술 교육 ㉠ 담당자를 위한 문화 예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의 하나로 ○○ 필하모닉 교육 부서와 연계하여 오는 10월 5일에 '예술 교육 음악으로 다가가기'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최소 1명 이상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정부 중앙 청사에 ㉡ 열린 문화 공간 조성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귀 기관으로부터 미술품을 대여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필하모닉 교육 부서 연계 전문가 초청 워크숍

나. 교육 목적: ㉣ 한일 과거사와 미래 지향적인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상호 교류

다. 교육 일시: 20○○. 10. 5.(월), 15:00~19:00

라. 교육 대상: 문화 행정 인력, 정부 부처·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 접수 인원이 많으면, 문화 관련 업무 담당자 우선 선정 예정

마. 주최·주관: 한국 ○○ 진흥원

바. 후원: 국민 체육 진흥 공단, ○○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끝.

- ㉠: 담당자의 문화 예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 ㉡: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 귀 기관으로부터 미술품을 대여받고자
- ㉣: 한일 과거사와 미래 지향적인 양국 간 관계의 발전을 위한

02 <보기>를 고려할 때, ㉠~㉢ 중 관형사만을 골라 묶은 것은?

보기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이다. 체언을 꾸며 주면서도 형태 변화를 하지 않으며 조사도 붙지 않는다. ‘순 살코기’의 ‘순’과 같은 정상 관형사, ‘저 어린이’의 ‘저’와 같은 지시 관형사, ‘한 사람’의 ‘한’과 같은 수 관형사 따위가 있다. 또한 관형사는 주어를 서술하지 않으며, 단순 수식 기능만 갖는다. 예를 들어, ‘그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니?’라는 문장에서 ‘어떤’은 ‘성격이 어떻다’와 같이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용언 ‘어떻다’의 활용형인 형용사이지만, ‘어떤 분을 찾아오셨습니까?’라는 문장에서 ‘어떤’은 수식 기능만 하므로 관형사이다.

- 그는 어려서부터 ㉠같은 고생을 했다.
- 나는 ㉡모든 욕심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 서로 성격이 ㉢다른 분야를 병행하기는 어렵다.
- 사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 ① ㉠, ㉡
- ③ ㉡, ㉣

- ② ㉠, ㉣
- ④ ㉢, ㉣

03 <보기 1>의 규정에 따라 <보기 2>의 ㉠~㉣을 발음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ㄷ’, ‘ㅌ’, ‘ㅍ’, ‘ㅊ’, ‘ㅍ’,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비]으로 발음한다.
- 제11항** 겹받침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비]으로 발음한다.
-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히, 히)’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 제23항** 받침 ‘ㄱ(ㄱ, ㅋ, ㄱ, ㄹ), ㄷ(ㅌ, ㅌ, ㅌ, ㅌ), 비(ㅍ,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비,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보기 2

- 학생 열 명 중 ㉠여덟만 책을 구입했다.
- 책을 ㉡읽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
-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놓고 있다.
- 어둠을 ㉣뚫고 거센 물소리가 들려온다.

- ① ㉠은 제10항 규정에 따라 [여덟만]으로 발음하겠군.
- ② ㉡은 제11항과 제23항 규정에 따라 [익따]로 발음하겠군.
- ③ ㉢은 제12항 1.의 규정에 따라 [노코]로 발음하겠군.
- ④ ㉣은 제12항 1.과 제23항 규정에 따라 [뚫코]로 발음하겠군.

04 ㉠~㉣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회슬레의 철학 장르론에 따르면, 철학적 진술은 어떤 개성을 지닌 저자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주제에 집중하건, 결국 객관적 대상에 관한 진술, 그 대상을 마주하는 주체에 관한 진술, 또는 주체들끼리의 관계에 관한 진술 중 적어도 하나에 속한다. 이러한 철학적 진술은 각각 문제의 주제를 전면에 내세워 다루는 방식, 주제에 대한 자신의 내면적 사유의 흐름을 기술하는 방식, 문제를 둘러싼 여러 주장들을 직접 대결시켜 보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이를 각각 ‘객관성의 장르’, ‘주관성의 장르’, ‘간주관성의 장르’라고 부른다.

가령 데카르트의 《성찰》에서 대부분의 문장은 1인칭 단수의 동사나 대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텍스트를 통해 독자는 저자의 사유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를 보여 준다. 또 다른 예인 《논리학》에서 저자인 헤겔은 결코 그 자신에 관해 말하지 않거니와, 이 저작은 철저히 개념들의 논리적 규정 및 그것들 간의 이행 관계 등에 대한 기술로만 구성된다. 이는 (㉡)를 보여 준다. 끝으로 플라톤의 《국가》와 같은, (㉢)의 전형인 대화편에서는 저자 개인뿐 아니라 타인 또한 명시적 발화 주체로 등장하여 주장들은 좀 더 생생하게 전달될 뿐 아니라 그것들 간의 대립 및 친화 관계도 잘 드러난다.

- | | | |
|-----------|----------|----------|
| ㉠ | ㉡ | ㉢ |
| ① 객관성의 장르 | 주관성의 장르 | 간주관성의 장르 |
| ② 객관성의 장르 | 간주관성의 장르 | 주관성의 장르 |
| ③ 주관성의 장르 | 간주관성의 장르 | 객관성의 장르 |
| ④ 주관성의 장르 | 객관성의 장르 | 간주관성의 장르 |

05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호그와트에서는 곧 표준 마법사 시험이 열린다. 아래는 시험을 볼 학생들에 관한 정보이다.

- 말포이는 시험에 합격한다.
-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시험에 합격하면, 론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 론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말포이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보기

- ㉠ 해리와 론 아무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 ㉡ 해리가 시험에 합격하면, 헤르미온느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 ㉢ 말포이와 헤르미온느 모두 시험에 합격한다.

- | | |
|--------|--------|
| ① ㉡ | ② ㉢ |
| ③ ㉠, ㉢ | ④ ㉡, ㉢ |

06 다음 글을 읽고 시 <오랑캐꽃>에 대해 이해하거나 추론한 바로 잘못된 것은?

이 시는 오랑캐꽃의 명칭에 대한 유래를 들려주는 에필로그를 빼면, 전체 3연으로 된 11행의 짝막한 시이다. 1연은 고려 시대 오랑캐를 정벌하던 시대를 읊고 있다. ‘가랑잎’처럼 굴러갔던 망국과 이항의 설움이 간결한 서사적 구조로 나타나 있다. 무지무지한 고려 장군님들을 피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시공간적 배경이 간명하게 표현되어 과거의 시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어 2연에서는 흘러가는 시간을 표현하였다. 골짜기에 따라 흐르는 구름의 모습을 통해서 몇 백 년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1연이나 3연에 비하여 2행으로 짧게 처리함으로써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3연에서는 이처럼 시간이 흘러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현재에 오랑캐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은 오랑캐꽃이 망국민의 설움을 안고 피어 있는 것이다. 특히 1, 2연이 서술형으로 시행을 마감하고 있음에 비하여, 3연에서는 ‘오랑캐꽃’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적 효과와 더불어 시상을 단정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지닌다. 아울러 반복을 통하여 설움의 정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의 구조를 참고하여 이 시를 감상할 때, 이 작품은 온전히 읽히게 된다. 물론 ‘올여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수동적 태도나 문제의식의 감정적 해소는 민족 문학의 관점에서 약간 미흡한 것이라는 판단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3연의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라는 시행에서는 시적 화자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의인화된 오랑캐꽃에게 주는 이런 시적 화자의 메시지는 수동적인 것으로 일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읽기에 의거할 때, 그 울음도 감상에 젖은 감읍벽만이 아닌 저항의 노래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를 적극적인 저항의 노래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시를 민족의 현실을 상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서정시라고 규정한다고 해도 그 가치가 폄하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 ① 1~3연 중 행의 길이는 2연이 가장 짧다.
- ② 3연이 명사로 끝난 것과는 달리, 1연은 ‘굴러갔단다’, 2연은 ‘흘러갔나’의 형태로 끝날 수 있다.
- ③ 몇 백 년의 시간이 지나갔음은 구름이 골짜기를 흘러가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 ④ 3연의 ‘-렴’이나 ‘-르게’를 사용한 의지적 태도는 이 시를 저항시로 규정하게 한다.

07 ㉠~㉤을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 ㉠ 분리막은 유입부와 감지부를 분리하는 장치로, 간섭 가스 필터로부터 보내진 가스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분리막을 통해 감지부로 유입된다.
- ㉡ 공기 중에 가스가 누출되어 센서의 유입부로 들어오면, 우선 먼지나 물 등 기체가 아닌 불순물들은 먼지 필터에 의해 걸러지고, 기체 상태인 가스만 간섭 가스 필터로 보내진다.
- ㉢ 먼저, 유입부는 가스가 센서로 들어오면 검지하고자 하는 가스 이외의 불순물을 걸러 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먼지 필터, 간섭 가스 필터,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이후 간섭 가스 필터에서는 특정 가스를 검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가스들은 필터에 흡착시키고, 검지하려는 가스만 통과시켜 분리막으로 보내게 된다.
- ㉤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는 유입부, 감지부로 구성된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08 <조건>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의 수정 및 보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건>

- 서론에는 내용을 적절히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추가할 것
- 본론의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 관련성을 고려하되, 각 장의 하위 항목은 서로 대응하도록 작성할 것
- 결론에는 글의 통일성을 위배하지 않는 내용을 삽입할 것

I. 서론: 한옥 마을 조성의 필요성 ㉠

II. 본론

1. 한옥 마을을 조성하는 이유 ㉡

가. 한옥 마을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의 복잡함

나. 한옥의 유지 및 보수에 많은 관리 비용 소요

2. 한옥 마을 조성을 위한 방안

가. 한옥 마을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나.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

III. 결론: (㉣)

- ① ㉠에는 '한옥 마을의 조성을 둘러싼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사례'를 추가한다.
- ② ㉡은 '한옥 마을을 조성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정한다.
- ③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확보 및 지원'으로 수정한다.
- ④ ㉣에는 '한옥 마을 조성을 위한 지방 자치 단체의 관심 및 지원 촉구'를 넣는다.

09 문맥을 고려할 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증언의 신뢰성은 증언하는 사람과 증언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증언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의 말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증언 내용이 우리의 상식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 보인다면 증언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증언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증언을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할 확률이 그 증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보다 작은 경우에만 증언을 신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답할 수 있다. 먼저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위반한 사건이다. 여기서 자연 법칙이란 지금까지 우주의 전체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따랐던 규칙이다. 그렇다면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사건, 즉 기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한편 우리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거짓을 말하는 경우를 이따금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 결국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증언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 ① 기적이 일어날 확률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할 확률보다 낮다
- ② 증언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은 기적이 실제 일어날 확률보다 낮다
- ③ 증언하는 사람의 말과 달리 기적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 ④ 증언하는 사람은 기적이 실제 일어날 확률을 단언할 수 없다

13 문맥을 고려할 때, ㉠~㉣ 중 잘못 수정한 것은?

1996년 미국, EU 및 캐나다는 일본에서 위스키의 주세율이 소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 패널은 ㉠ 피소국인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판정을 근거로 미국과 EU는 한국에 대해서도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당시 소주의 주세율은 증류식이 50%, 희석식이 35%였는데, 위스키는 100%였다. 한국에 위스키 원액을 수출하던 EU는 1997년 4월에 한국을 제소했고, 5월에는 미국도 한국을 제소했다. 패널은 1998년 7월에 ㉡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다. 패널의 판정은, 소주와 위스키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고 동시에 대체 관계가 존재하므로 ㉢ 국산품인 소주에 비해 수입품인 위스키에 높은 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의 주세 제도가 WTO 협정의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소주와 위스키 간 주세율의 차이를 해소해야 했다. 결국 ㉣ 위스키의 주세율은 올리고 소주의 주세율은 내리면서, 똑같이 72%로 맞추는 방식으로 2000년 1월 주세법을 개정하여 차이를 해소했다.

- ① ㉠: 제소국인 미국, EU 및 캐나다의 손을 들어 주었다
- ② ㉡: 한국의 패소를 결정했다
- ③ ㉢: 수입품인 위스키에 비해 국산품인 소주에 높은 주세율을 적용
- ④ ㉣: 위스키의 주세율은 내리고 소주의 주세율은 올려서

14 ㉠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술은 사회 내부의 선(善)을 실천하는 데에 목적을 두느냐, 아니면 즐거움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 구별될 수도 있다. ㉠ 교훈설은 예술의 존재 이유는 바른 행동과 덕성을 표현하고 장려하는 데 있으며, 예술이 가진 선이 사람에게 교훈과 모범이 되고 우리를 고상하게 해 준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선과 미는 서로 연관된 것이며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플라톤이 이를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반면에 쾌락설은 예술의 목적은 즐거움의 추구일 뿐 도덕적 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도덕적 기준으로 예술을 판단하는 모든 노력은 근본적으로 잘못이며,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다.

- ① 예술 작품은 특정한 동기를 갖지 않으며 오직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감각적 성질들로만 예술을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는 ㉠을 약화한다.
- ② 음악은 정욕을 감화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견해는 ㉠을 약화하지 않는다.
- ③ 음악이 타락했을 때 음악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나라도 망하게 한다는 견해는 ㉠을 강화하지 않는다.
- ④ 예술의 본질이나 가치를 규정하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는 ㉠을 강화하지 않는다.

15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의 인력 채용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는 능력을 위주로 하는 과거제, 신분을 중시하는 음서제, 알려지지 않은 인재를 발굴하는 천거제라 할 수 있다. 세 가지의 관리 임용 방법 외에도 각 왕조마다 관리로서 입직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었다.

우선, 과거제는 고려 광종 9년(958년)에 쌍기라는 학자의 건의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이는 당·송 제도를 모방하여 시행되었으나 고려 왕조 나름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 왕조 시대에 들어서 독자적인 제도의 모습을 갖추었다. 과거제는 고려와 조선 왕조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음서제는 고려 초기에는 5품까지, 후기로 넘어가면서 4품까지, 말기에는 3품까지, 조선 전기에는 2품까지의 관리의 자손에게 관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마지막으로, 천거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이는 과거제와 함께 계속하여 고려와 조선 왕조의 인력 선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① 초기의 과거제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독자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 ② 조선 시대에는 과거나 음서, 천거를 통하지 않고 관리로 등용된 사람도 있다.
- ③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음서제는 개인의 신분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게 되었다.
- ④ 천거제는 고구려 왕조에서부터 조선 왕조까지 이어진 인재 발굴 제도였다.

16 ㉠~㉣을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음악 평론가는 최근 무분별한 표절 시비가 급증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새로운 옷의 전체를 보고 평가해야지 단춧구멍이 동일하다고 그 옷의 창작을 ㉠ 폄하하거나 마녀사냥식의 호도는 가요계를 부정하는 일이다. 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러한 진정성을 특정 구간에 국한하여 ㉡ 호도하는 경향은 없지 않은지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무분별한 표절 의혹은 아티스트의 오랜 행보에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문제를 지적하는 측도 면밀한 음악적 분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즐기치게 표절 의혹 곡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많은 아티스트의 커리어에 흠집을 냈지만, 표절로 판정된 사례는 드물다. 의혹만 ㉢ 난무하고 결국 결론 나지 않은 표절 판정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정된 소리의 음표 안에서 반복되는 후렴구의 유사성이 그 곡을 표절로 ㉣ 치부하는 무책임이 창작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 ① ㉠: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 ② ㉡: 간곡히 알리는
- ③ ㉢: 함부로 나서서 마구 날뛰고
- ④ ㉣: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여기는

17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최근 도서, 영화 등을 요약하거나 재가공하는 요약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나도 유명한 책을 요약한 영상을 시청했는데, 500쪽이 넘는 책을 10분 만에 요약해 줘서 책을 읽는 데 들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

B: 내가 본 기사에서도 요약 콘텐츠를 시청하는 가장 큰 이유가 효율성이라고 했어. 또 요약 콘텐츠의 인기 배경이 대중문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라고 하더라.

C: 대중문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 요약 콘텐츠의 인기 현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

B: 최근 대중문화 콘텐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요약 콘텐츠를 시청하면 많은 작품을 빠르게 접할 수 있으니까 인기가 있다는 거야.

A: 한 작품을 요약하는 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 원작을 요약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원작 내용을 과장하고 비약하는 부분이 생기잖아.

C: 그건 요약 콘텐츠 제작자의 해석의 자유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A: 요약 콘텐츠 제작자에게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건 맞아. 하지만 그 해석의 자유 때문에 원작의 메시지가 왜곡된다는 게 문제야. 또 이렇게 원작의 메시지가 왜곡된 요약 콘텐츠를 시청하고 그 해석을 원작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

- ① 대화의 흐름을 화제 대상의 장점에서 단점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있다.
- ② 상대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재진술하여 중심 화제의 의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 ③ 상대의 발언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 ④ 상대의 반박 견해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는 사람이 있다.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뇌 연구는 지금까지 사고와 기억 등 두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뉴런의 연결망과 뉴런 간의 전기 신호로 설명했다. 그러나 두뇌에는 뉴런 외에도 신경교 세포가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신경교 세포가 단지 두뇌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과 두뇌 보호를 위한 전기 절연의 역할만을 가진다고 여겼다. A 연구 팀은 신경교 세포가 전체 뉴런을 조정하면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킨다고 예상하고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간의 신경교 세포를 갖 태어난 생쥐의 두뇌에 주입했다. 쥐가 자라면서 주입된 인간의 신경교 세포도 성장했다. 이 세포들은 쥐의 뉴런들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쥐의 두뇌 전체에 걸쳐 ① 퍼지게 되었다. 심지어 어느 두뇌 영역에서는 쥐의 뉴런의 숫자를 증가하기도 했다. 뉴런과 달리 쥐와 인간의 신경교 세포는 비교적 쉽게 구별된다. 인간의 신경교 세포는 매우 길고 무성한 섬유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쥐에 주입된 인간의 신경교 세포는 그 기능을 그대로 간직한다. 그렇게 성장한 쥐들은 다른 쥐들과 잘 어울렸고, 다른 쥐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이 쥐들은 미로를 통과해 치즈를 찾는 테스트에서 더 뛰어났다. 보통의 쥐들은 네다섯 번의 시도 끝에 올바른 길을 배웠지만, 인간의 신경교 세포를 주입받은 쥐들은 두 번 만에 학습했다.

18 이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쥐의 두뇌에 인간의 뉴런 세포를 주입하면, 쥐의 뉴런과 인간의 뉴런을 완벽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② 쥐의 두뇌에 인간의 신경교 세포를 주입하면, 그 신경교 세포는 쥐의 뉴런에 전기 신호를 전달할 것이다.
- ③ 쥐의 두뇌에 주입된 인간의 신경교 세포는 쥐의 두뇌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일 것이다.
- ④ 쥐의 두뇌에 인간의 신경교 세포를 주입하면 그 세포는 쥐의 사고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하류로 갈수록 강물이 점점 넓게 퍼진다.
- ② 미리 끓여 놓았던 라면이 퍼져서 탕탕 불었다.
- ③ 민들레씨는 바람에 날려 전역으로 퍼진다.
- ④ 산행을 마친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푹 퍼졌다.

20 다음 대화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박 주무관: 그 소식 들었어? 신입 직원 중 일부가 동계 연수에 참여했대. 그리고 (㉠).
김 주무관: 지금 한 말에 따르면, 신년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가 신입 직원이라는 결론이 나오네.

- ① 신입 직원 중 신년회에 참여한 사람이 있대
- ② 동계 연수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신년회에 참여하지 않았대
- ③ 신년회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동계 연수에 참여했대
- ④ 동계 연수에 참여한 사람 중 신년회에 참여한 사람이 있대

2025 선재국어
꿀조합 커리큘럼

